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전통의복부문

남자복식

심화연구자 송 미 경(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CONTENTS

제1부 연구개요

제2부 디자인DNA 기초연구

제3부 대표디자인



제 1부

연구개요

“복식의 디자인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행동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복식이 입혀지고 유행하였다는 것은 첫째, 기능 둘째 구조 셋째 장식의 측면에서 잘 디자인되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복식은 이 3가지 측면들이 매우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보이는 것으로, 각 측면이 다른 측면들과 분리되면서 서로를 보완해 준다” 고 Marian L. Davis는 『Visual Design in Dress』에서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전통 복식에 스며있는 디자인의 DNA는 무엇인지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 의복 가운데 남자 복식의 한국 디자인 DNA 추출은 현재 전해오는 고려시대 복식과 조선시대 남자 복식을 대상으로 하여, 보고서와 도록의 사진을 참고하여 36점의 복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복식은 기능, 구조, 장식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의복 남자복식 DNA로 **역사성**을 들 수 있다. 우리 복식은 삼국시대 이래 남녀의 기본 복식은 곧은 것[直領]에 앞이 트인 카프탄(caftan) 형이며, 바지와 저고리의 상하의가 분리된 이부식(二部式) 복식에 그 위에 포(袍)를 입는 차림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역사성과 전통성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어져 발전하는 **영속성**이다. 이는 비록 이국적인 복식인 단령이나, 답호, 직령, 철릭 등 많은 복식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와 문화에 맞는 형태와 구조로 변형되어 착용되어 왔다. 철릭의 상의하상의 비율과 주름형태의 변화 등도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자의복 DNA로는 **미적 감각**을 들 수 있다. 우리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복의 아름다움 중 기본은 **‘중첩의 미’** 라고 생각한다. 아침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한국의 산하처럼, 한국의 복은 여러 벌을 껴입음으로써 상생의 미가 발생한다. 조선시대 평상복 착용 시는 한삼, 저고리, 소창의, 중치막, 창의, 도포, 심의를 겹쳐 입어 착용자의 풍채가 더욱 빛이 난다. 조선시대 전기 관복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삼, 과두, 철릭, 답호, 단령을 겹쳐 입으면 풍성한 ‘무’의 형태로 인해 관리의 위엄이 더 높아진다. 특히 조복이나 제복같은 예복을 입을 때 의(衣)와 중단(中單), 상(裳) 폐슬(蔽膝), 수(綬)의 자수와 장식, 대대(大帶)와 혁대(革帶), 홀(笏), 혜(鞋) 등 겹쳐진 색상, 형태 그리고 장신구와 부속물이 조화됨으로써 엄숙하고도 완벽한 아름다움이 갖춰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재의 소박함과 단순한 형태에서 오는 **단순함**도 특징 가운데 하나

이다. 한국 전통의복 가운데 남자 복식은 단색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상복 착용 때 색상이나 옷감에서 오는 단순함은 광다회, 세조대와 같은 남성용 장신구로 보충하였다. 조선전기 남성 복식 가운데 면이나 마와 같은 소박한 소재를 사용할 때는 자주색 실을 사용하여 장식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트임의 찢김 방지에 사용하는 작은 ‘무’ 의 옷감 색상이나 사뜨기용 실, 매듭단추의 색상, 옷고름의 색상 등을 눈에 띄이는 것으로 사용하여 디자인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한국 남자 전통의복은 트임이 많아 활동성이 보장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움동감**은, 착용자는 물론 복식 자체에 생기를 북돋우는 구실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복식은 중첩의 미라고 하였다. 트임이 없으면 옷을 겹쳐 입어도 둔하게만 보일 것이다. 착용자가 활동할 때 이 트임의 사이로 보이는 옷의 움동성은 한국 남자 복식이 갖는 아름다움 가운데 스쳐지나 갈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셋째, 한국 남자 전통의복 디자인 DNA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활동성**이 부여되는 **가능성**이다. 이는 조선전기 남자 상의류와 포류의 진동에 대부분 있는 ‘겨드랑이 삼각무’ 를 들 수 있다. 겨드랑이 삼각무는 서양의복구성에서 ‘gusset’에 해당되는 것으로 크기는 작지만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포류나 상의에 있는 트임의 방지에 사용되는 작은 삼각무와 매듭단추 그리고 사뜨기 등도 기능적인 디자인에 넣을 수 있다. 복식 자체가 **기능적인 디자인의 옷**은 배자와 방령 등이 있다. 배자는 어깨는 고정되어 있고, 진동 아래를 형성하는 방법은 시대와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장후단형의 배자와 방령은 최소한의 평면구성으로 입체적인 공간으로 디자인을 변화시킨 미니멀리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남자 전통의복 디자인 DNA로 들 수 있는 것은 **복식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기능적인 디자인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구조적인 디자인이다. 겨드랑이 삼각무와 구별되는 다른 기능의 무늬, 길의 좌우에 달리는 섶과 무이다. 섶과 무는 모두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하는 구조이다. 이 섶과 무의 디자인과 구성법에 따라 활동성도 보장이 되며, 외관도 달라진다.

남자복식의 형태에서 기능성과 더불어 옷의 **구조가 변형 가능한 가변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철릭이나 방령의 소매의 탈착으로 인해 옷 자체가 transformer로서 바뀐다. 필요에 따라 한 쪽 소매를 뺄 수 있고, 양쪽 소매를 뺄 수도 있다. 이 소매를 떼고 붙일 때도 쌍밀이 단추를 이용할 수 있고,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고름과 같은 가는 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착용자와 디자

인하는 사람의 필요와 감각에 따라 옷 전체가 변형 가능하다.

복식의 구조에 따라, 옷고름의 길이와 너비, 깃너비, 동정너비와 길이, 형태가 변화한다.

비대칭 삼각무가 달린 적삼의 경우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의복은 **옷의 구성이 과학적**이다. 이러한 점은 옷을 마름질할 때 패턴의 구성에서 드러나는데, 어떠한 옷이든 옷감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다섯째, 한국 남자 전통의복 디자인 DNA로 들 수 있는 것은 **복식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관리의 예복은 옷 자체로 국가의 기강과 권위 및 복식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학자가 입는 심의나 난삼 또한 복식에 유학의 이념을 옷으로 풀어 해석하여 착용자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학문 자체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남자복식에서 겹감은 화려한 옷감을 사용하지 않고, 안감에는 문양이 있는 옷감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관리복은 착용자의 지위와 착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왔지만, 평상복은 착용자가 도에 벗어나지 않게 절제하여 착용하였다. 이점은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대에 두루마기의 착용에서 대동(大同)이라는 혁신적인 정신으로 도출되었다.

■
제 2부

디자인 DNA 기초연구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조복(朝服)

—신경유 묘 출토 조복

조복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대사(대사), 경축일, 원단(원단, 설날), 동지날이나 칙령을 반포할 때, 진표(진표)할 때 착용한 예복이다. 조복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한다. 조복의 구성은 양관(梁冠) 의(衣) 상(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후수(後綬)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佩玉) 말(襪) 화(靴) 홀(笏)로 구성된다. 착용자의 신분은 양관의 양 수, 혁대의 재료, 패옥의 재료, 후수의 문양과 부착된 환의 재료 등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조복은 출토복식과 전세유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출토복식에서는 조선시대 중후기의 것으로 조복 형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출토복식에 조복이 수습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 가운데 일습이라 할 수 있는 조복의, 상, 후수, 폐슬, 대대가 수습된 경우는 신경유(1581~1633) 밀창군 이직(1677~1746) 여주군 향토사료관 소장 조복의 3건이다.

신경유는 조선시대 중기 임진란 때 유명한 무인이었던 신립장군의 2남이었다. 2006년 2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이장작업 중 출토복식이 수습되었다. 신경유 묘 출토 조복은 의, 상, 후수, 폐슬, 대대가 수습되었으며 후수에는 망(망)도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조복의 의에는 아직도 붉은 색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는 무문릉(無紋綾)으로 만들었다. 끈은 깃에 넓은 동정이 달렸으며, 옆자락이 트여있어 겹길과 안길 그리고 뒷길로 된 3자락의 옷이다. 홀옷으로 깃, 소매끝, 길의 가장자리, 도련의 겹쪽으로 김정으로 추정되는 무문릉으로 만든 별도의 단을 부착하였다. 뒷길의 겨드랑이 부근에는 대(帶)를 고정하기 위한 대고리가 달려있다. 깃은 끈은 깃으로 칼깃이며, 옷고름은 옷의 가장자리의 별도의 단과 같은 옷감과 색상으로 만든 길고 좁은 고름 1쌍이 달려있으며, 속고름도 있다. 조복의 일습 가운데 하나인 상(裳)은 조선시대 후기에 전해오는 전세유물과는 다른 형태이다. 마치 여자의 치마처럼 허리 말기에 큰 주름이 잡혀있으며, 앞은 3폭, 뒤는 4폭[前三後四]으로 만들어져 있고 조복의 의처럼 상에도 가장자리에 도련 모두 별단이 덧대어 있다. 후수를 고정할 수 있는 대대도 수습되었다. 대대는 하나로 연결된 긴 띠를 좌우의 세로 길이 지점에서 삼각이 되도록 꺾어 ㄱ형태로 만들었다. 대대의 가장자리에는 선단을 끼워 둘러다. 신경유 조복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폐슬과 후수이다.

폐슬은 사다리꼴형태이며 후수와 함께 끈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3개 달려 있다. 후수의 아랫부분에는 망수(網綬)가 달려있다. 망수의 중간에는 연주문의 원형이 4개가 있는 형태이다.

사진: 신경유 묘 조복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77~9380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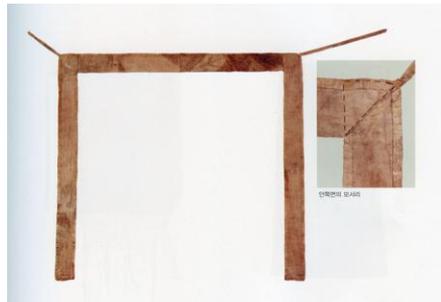
조복 衣



조복 의



조복 裳



대대



후수와 폐슬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조복(2) 심동신

조복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대사(대사), 경축일, 원단(元旦, 설날), 동지날이나 칙령을 반포할 때, 진표(進表)할 때 착용한 예복이다. 조복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한다.

조선시대의 조복은 전해 내려오는 전세조복과 출토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전해오는 조복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말기의 것으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심동신 김병기, 정원용, 이화여대소장 조복, 흥완군, 정은 가 유물, 장영직 등 여러 점이 전해오고 있다.

심동신(1824년 출생)의 조복은 양관 1점, 조복 의 1점, 중단 1점, 상1점, 후수 1점, 패옥 1점, 서대 1점, 홀 1점의 일습이 전해오고 있다.

조복은 붉은 색의 옷과 국말의 청색 중단의 색이 조화되며, 양관의 금칠이 더욱 행사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한다. 조복 의와 상(裳)의 가장자리 흑색의 연(緣)이 무계감을 더하고, 흑색 연 위에 흰색 실로 상침을 수놓았다. 조복의 후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대대와 함께 수(紉) 상단의 환(環), 수의 문양과 수 하단부의 망수의 조합에서 보이는 균형감도 뛰어나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119-123

문화재청(2006)



심동신 조복



제복

제복은 문무백관이 중요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제관과 향관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제복의 구성은 양관(제관), 의(衣), 폐슬(蔽膝), 방심곡령(方心曲領), 상(裳), 대대(大帶), 중단(中單), 수(紉), 혁대(革帶), 패옥(佩玉), 말(襪),혜(鞋), 홀(笏)로 조복과 같으나 양관은 흑색 칠이 되어 있고, 조복이 홍색인 것에 비해 제복은 흑색에 방심곡령이 있으며, 중단은 흰색에 흑선을 두르는 것이 다르

다.

이 제복은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鄭元容 1783 정조7~1873 고종10)의 유품 가운데 제복이다. 제복은 검정색 곶은 목판깃 위에 흰색의 둥근 깃[방심곡령]이 합쳐진 형태이다. 길의 색상은 검정색이며 홑옷이다. 제복은 수구가 직선인 넓은 두리소매이고 수구와 앞길과 뒷길 가장자리에는 검정색의 단(襟) 위에 흰색의 실로 상침을 하였다. 제복은 길이가 다른 포에 비해 짧으며, 이는 제복 밑에 받쳐입는 중단을 입음으로써 길이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할 수 있다. 제복은 검정색 길과 방심곡령과 길의 가장자리에 장식되어 있는 흰색의 상침이 제복이 가질 수 있는 엄숙하고 절제된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앞길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붉은 색의 폐슬은 제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외의 상과 대대 수 현대 패옥 말, 홑은 조복과 같으며 대부분 붉은 색과 검정색으로 단순한 조화를 이룬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139

문화재청(2006)



정원용 제복

단령- 변수묘 출토 단령

단령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리의 관복(官服)이다. 단령은 깃이 둥근 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길의 양쪽에는 무가 달려있으며 무의 옆선은 트여있다.

이 단령은 변수(1447~1524) 묘에서 출토된 단령이다. 조선 초기 단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연화문사 홀단령이다. 먼저 깃은 좁고 깃의 파임은 깊지 않다. 품은 매우 넓고,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나 배래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변수 묘 출토 단령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무' 라고 생각한다. '이중 접음무' 로 진동아래 옆선은 25cm로 조선 초기의 무가 달린 복식-단령, 직령, 답호-이 주는 균형감이 다른 옷에 비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무는 직사각형의 무 모서리를 접어 넣어 아래쪽으로 처지는 형태이다. 단령의 앞뒤길의 차이는 없다.

-변수(邊守, 1447~1524) 묘 출토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page 124~125
국립민속박물관 (2005)



단령-정응두(丁應斗, 1508~1586) 단령

단령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리의 관복(官服)이다. 단령은 깃이 둥근 것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단령에 부착되어 있는 흉배의 문양과, 허리에 착용하는 대(대)의 재료에 따라 신분의 구별이 가능하다. 길의 양쪽에는 무가 달려있는데, 무의 옆선은 트여있다.

이 단령은 정응두(丁應斗, 1508~1586) 묘에서 출토된 단령이다. 조선전기 단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문단 홀단령이다. 먼저 깃은 좁고 깃의 파임은 깊지 않다. 품은 매우 넓고, 소매는 진동과 소매통이 가장 넓은 곳과 거의 비슷한 길이이며, 수구에서 살짝 굴러준 통수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단령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와 길이에 있다. 정응두 묘 출토 단령의 무는 진동에서 무까지 연결되어 무의 상단이 곡선처럼 보인다. 무는 이중 접음무로 무의 상단이 아래쪽으로 접혀있는 형태이다. 앞 뒤 길은 길이차이가 있는데 앞이 뒤보다 약 15cm 정도 더 짧다.

이 단령에는 가로 38cm, 세로 39cm의 공작홍배가 달려있다. 홍배의 하단에는 산수문과 파도문이 있고 그 위를 공작 1쌍이 날고 있다. 공간 가득히 모란문이 있으며, 홍배의 상단에는 운문이 채워져 있다. 이 홍배로서 정응두는 당시 문관 1~2품의 벼슬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응두 단령은 왕실의 권위에 알맞는 적당히 무게감있는 운문단 옷감과 양쪽으로 뺀 무 형태와 화려한 모란과 공작홍배의 문양이 주는 조화로 당당한 조선시대 관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91-92 도판 53, 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2006)



신경유(~1633) 단령

관리들의 관복인 단령은 임진란 이후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눈에 가장 띄는 변화는 소매와 무의 변화이다. 소매는 임진란 이전에 비해 진동에서부터 사선으로 많이 파여 이로 인하여 진동과 소매통 너비가 서서히 차이 나면서 통수에서 곡선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단령과 직령 독립된 옷이 만나 1벌로 합쳐지는 과정이 임진란 이

후 1630년대부터 시작된다. 단령과 직령 각 독립된 옷이 만날 때, 이 때 발생되는 큰 변화는 무의 처리이다. 무는 겹감과 안감이 서로 고정되어 있으나, 아직 뒷길에 고정되지 않아 끝이 올라간 무가 앞길에서 보인다.

신경유(~1633) 단령은 겹감인 운보문단단령, 안감은 화문단로 만든 직령을 무의 상단에서 2벌을 징귀 1벌로 착용했던 옷이다. 신경유 묘 출토 단령의 무는 앞무와 뒷무 형태의 차이도 있고 크기의 차이도 있다. 앞무는 끝이 뾰족한 삼각형이고 뒷무는 앞무보다 조금 작으며 사다리꼴의 무가 달려있다.

신경유 단령에는 무가 달려있는데, 사자흉배로 무관 1~2품의 흉배이다.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복식 page 28-29

단국대학교출판부(2008)



의원군 이혁(1661~1722) 단령

단령은 관복으로 관리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의원군 이혁의 묘에서 수습된 단령은 18세기 전기 단령의 대표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단령의 깃 파임과 옷고름의 형태와 크기, 무의 형태 등이 안정화되어 국말까지 이어져오는 근간이 된다.

의원군의 단령은 겹옷은 짙은색 운보문단 단령, 속옷인 직령은 연분홍색 계통이 연하게 남아있는 연화문단으로 각각 독립된 옷으로 만들어 겹옷과 속옷을 수구, 옆선, 밑단을 바느질로 징귀 1벌의 겹옷으로 완성하였다. 단령과 직령이 독립된 홑옷이므로, 각 옷에 필요한 어깨, 겨드랑이 바대 등이 있으며, 도련과 섯선의 단도 있는 상태이다. 이리하여 안감에 해당하는 직령의 시접이 겹으로 나와 있다. 단령과 깃에는 심을 넣어 4땀 상침을 하였고, 고대 중심에는 6땀 상침으로 깃을 고정하였다.

이 단령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의 처리이다. 17세기 초엽 고정하지 않은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무가 길의 좌우에 부착되었던 것을, 18세기 초엽에는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무에는 솟단추를 뒷길에는 암단추 고리를 부착하였다. 또한 무의 상단부에 심을 넣지 않았지만 겉옷의 단령과 속옷의 직령의 무가 만나면서 충분히 무게감과 안정감이 있다.

진동선의 파임 또한 매우 유려한 곡선을 사용하였으며 소매는 넓은 두리소매이다. 단령과 직령이 만나는 것 부분은 이 단령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직령이 칼깃인 것에 반하여, 의원군 단령의 속옷인 직령은 깎은 당코깃이다. 깎은 당코깃을 편안히 놓기 위하여 직령의 길부분과 깃을 과감히 길이로 10.5cm 정도 접어 피셔 다이어트(fisher dart)를 만들었다. 이는 깃과 동정을 편안히 놓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의원군 이혁 묘 출토 단령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는 흥배이다. 흥배는 신분의 구별을 할 수 있는 표식으로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의원군 이혁의 단령에 부착된 흥배는 선학(仙鶴) 1마리를 금사로 징금수를 놓았고, 흥배의 하단부에는 괴석과 파도무늬가 있으며, 배경에는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가득 바탕을 메우고 있다. 왕실 종친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흥배라 생각된다. 주문양인 선학 외에도 괴석과 수파문과 구름문양은 명나라나 청나라 흥배와 구별되는 문양으로 발전해 나가는 조선의 독특하고 돋보이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복식명품선 page 18-19 도판



선비의 일상, 얇은 옷감과 정갈한 자색 실로 표현되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묘 출토 면포(綿布) 직령-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 일상용 포로 사용되다가 1630년대 이후부터 관복인 단령의 받침옷으로 입혀지다가, 17세기 후반이후에는 단령과 직령이 1벌로 바느질된다. 기본구조는 단령과 같은데 깃 모양이 단령은 둥근 것에 비해 곧은 것이 특징이다. 소매 모양은 단령의 소매와 거의 같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에 수습되는 직령은 소재와 구성이 다양하다. 이는 계절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직령은 경기도박물관 소장으로 심수륜(沈秀崙, 1534~1589)의 무덤을 이장할 때 수습된 것이다. 수의(壽衣) 위에 다시 한 번 더 시신을 감싼 소렴(小殮)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소색(素色) 면포(綿布)로 만든 것으로, 옷감은 매우 얇아 거즈(gauze)처럼 반투명한 느낌이다. 겉깃은 넓은 칼깃, 안깃은 약간 굴린 목판깃으로 균형을 잡았다. 직령의 무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형태로 직사각형을 앞뒤를 마주보게 접었다. 이 직령에서 빼어난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고름 형태이다. 옷고름은 자주색으로 추측되는 주(紬)를 사용하여 이 옷고름은 요즈음의 핸드폰 고리와 같은 형태의 너비 0.5cm의 고리 끝에 삼각형으로 끝을 감싸 넣은 너비 2.3cm, 길이 30cm의 고름이 달려있다. 고름의 고정하는 것이 끝나는 바로 아래에 고리를 매달았다. 양쪽 모두 이렇게 고름을 처리하여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이 엿보인다. 소색의 소재에 짧고 좁은 자주색 옷고름으로 모자랐던 것일까? 이 직령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느질에 사용된 실의 색상이다. 얇은 훑옷임을 감안하여 옷감의 질감에 어울리는 솔기처리법인 말아 감치기 또는 감침질을 하였다. 자주색으로 추정되는 실로 바느질하여 겉에서 봤을 때 살짝살짝 자주색으로 상침을 한 듯 바느질 땀이 보인다.

이 직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직령 위에는 수습당시 올리브그린색의 도어(鵝靑廣條兒)가 둘러져있었다. 도어는 너비 1.2cm, 길이 232.5cm 이며 그 양쪽 끝에는 9cm 길이의 술장식이 있다. 매듭의 안쪽으로 금편이 있다.





사진첨부: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도판번호 006, 007 페이지 24-25.

가야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伽倻山 文殊寺 金銅阿彌陀佛腹臑) 답호

197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충남 서산시 문수사 극락보전의 금동아미타불좌상을 조사하게 되면서 다른 복장품과 함께 수습한 답호이다.

답호는 고려시대 원(元)으로부터 도입된 옷으로 특징은 반수의를(半袖衣)로 포류 위에 입었던 옷으로 생각된다.

문수사 불복장 답호는 경사는 견사(繭絲), 위사는 저마사(苧麻絲)로 짠 사저교직(絲苧交織)의 홉옷이다. 길이는 111cm, 폭은 62cm이다.

이 답호는 반수포라고도 불리는데 소매가 짧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진동보다 수구는 조금 더 좁아서 사선을 이룬다. 깃은 고려말~조선초의 전형적인 '목판 이중깃'이다. 깃나비의 중심부를 꼬집어 박기를 하여 마치 겉에서 보면 독립된 깃 2개를 이어 붙인 것처럼 보인다. 동정과 옷고름은 달려있지 않다. 홉옷이기 때문에 어깨에는 바대가 있다. 답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라고 생각된다. 길의 좌우에 앞뒤로 붙은 사다리꼴의 무를 이중맞주름으로 속으로 접어 넣어 무의 상부를 봉재하고, 아랫 부분은 트임으로 처리하였다. 겉에서 볼 때 진동과 연결된 무의 상단 선[line]은 경사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나, 도련으로 내려가면 주름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사선이다. 이는 착용하였을 때 길 양쪽에 입체감을 주는 효과를 준다.

지심귀명례 page 35 도판 27



은유와 부드러운 곡선의 미, 변수 묘 출토 연화문사 답호

답호는 조선시대 전기 철릭 위에 덧입는 일상용 포이다. 철릭과 답호을 입은 위에 단령을 입으면 관복(官服)으로 갖추어 입게 된다. 답호의 유래는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본구조는 직령과 같은데 소매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답호는 시대에 따라 깃과 무 그리고 소매모양이 다양하게 변화된다.

변수(1447~1524)묘에서 출토된 연화문사 답호는 조선시대 초기 답호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고려시대 답호처럼 깃은 목판 이중깃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눈에 띄이는 변화는 무의 변화이다. 고려시대 답호 무의 형태가 길 안쪽으로 들어간 '다중 접음무' 형태라고 하면 변수 묘 출토 답호는 앞뒤 무를 마주보고 겹으로 들어나 있다. 무의 상단부는 높이 cm 로 깊게 접어 넣어 깎은 모양이다. 진동아래에서부터 cm 로 여유있게 무가 달려있다. 이와 같은 무는 답호를 착용할 때 답호 아래에 입은 철릭의 주름을 부드럽게 덮을 것이다. 옷고름은 자색 옷감으로 매우 좁은 고름이 달려있었던 흔적이 있다.

깃은 목판 이중깃이다. 목판이중깃이란 연구자들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나무판[木板]처럼 생긴 깃으로 보통 깃의 안쪽에서 꼬집어 박기를 하여,

가늘게 박음선이 들어가 마치 좁은 깃을 2개 연속해서 이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나타나는 남자 포류의 깃 특징이다. 길것은 깃 끝머리에 이룰수록 깃너비가 살짝 좁아지며, 깃을 얹힐 때 제법 곡선을 주어 굴려 앉았다. 안깃은 목판깃으로 거의 직선으로 앉혀졌다. 고름은 깃너비의 1/4 가량 정도로 좁은 편이다.

이 답호는 철릭위에 입혀져 단령의 밑받침 옷으로 사용된 것이다. 답호는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옷으로 밑에 받쳐 입는 옷에 따라 형과 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변수묘 출토 답호의 경우는 반투명하게 비치는 연화문사의 옷감으로 이 답호를 착용하였을 때 받쳐입는 옷의 색상에 따라, 연화무늬가 도드라질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 변수 묘 답호
한민족 역사문화도감, 국립민속박물관(2005) page 140, 141

정원용 흘답호

정원용(鄭元容 1783 정조7~1873 고종10)의 유품인 흘 답호이다. 이 옷은 답호, 전복, 쾌자라고도 하였는데 소재의 은조사를 사용하여 흘로 만들었다. 소매와 깃은 없으며 살짝 굴린 V 형의 합임으로 포(포)위에 입는 긴 조끼형태이다. 깃과 앞 썸 그리고 도련과 옆트임에는 검정색 단(연)이 둘러져 있다. 특이한 점은 깃 부분에 둘러져 있는 연은 다른 곳에 둘러져 있는 연은 1/2 너비이다. 이 답호에는 20cm의 옆트임과 뒷중심에서 하단 끝에서 36.7cm의 트임이 있다. 옷의 여밈은 흰색의 짧고 좁은



웃고름 1쌍으로 여몄다. 이 답호에는 가슴과 등에 상(裳)을 연결할 수 있는 빨간색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복의 받침 옷인 중단으로 사용한 답호라고 추측한다.

이 답호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 감각은 무엇보다 절제라고 생각한다. 소재 길에 검정색 연과 짧고 좁은 웃고름이 주는 단순함이 조화된 답호이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141 은조사 홀 답호
문화재청(2006)

연분홍 고운모시 철릭- 해인사 불복장 요선철릭

해인사 비로나자불 복장에서 나온 복식 가운데 하나이다. 요선철릭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허리에 요선장식이 있는 철릭의 일종이다. 철릭은 고려시대 원에서 전래되어 온 남자의 포류이다.

해인사 비로나자불 복장품 요선철릭은 분홍색 기운이 얇게 감도는 매우 고운 세모시로 만든 홑철릭이다. 치수는 길이 102cm, 뒷폭 34cm 화장 77.5cm로 성인용이 아닌, 소년의 옷이다. 이는 요선철릭의 치마 앞쪽 안자락의 안쪽에 “年十五 宋夫介 長命之願”이라는 묵서로 확인되었다.

이 옷의 가장 특징은 허리에 장식되어있는 요선(腰線)장식이다. 요선의 수는 앞이 9줄, 뒤가 10줄이며 너비 0.5cm 간격으로 나란히 있는데, 요선은 길의 바탕 옷감을 그대로 주름[tuck]을 잡은 것으로 주름 아래 위에 두줄로 온상침을 하였다. 상침을 한 안쪽에는 13cm 너비의 고운 생초(生紬) 덧단을 대고 감침질하였으며, 안설편에는 요선장식이 없다.

홑옷이므로 바대도 디자인의 요소로 작용한다. 바대는 겨드랑이 바대는 없고, M자형의 등바대이다.

치마는 8폭을 연결하였고 왼쪽 뒷길부분이 서로 겹치면서 트임이 있으나, 트임은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치마의 주름은 1.5~2cm의 맞주름이고 트임을 위한 겹치는 치마폭에는 주름을 잡지 않았다. 이는 치마폭 전체에 주름을 잡으면 주름이 부하게 뜨는 것을 방지하는 지혜로움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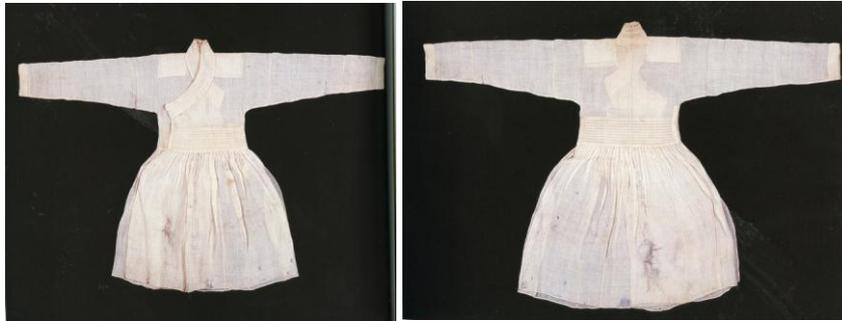
깃은 고려시대 말~조선초의 특징적인 목판 이중깃으로 겹깃 쪽에 앉힐 때 깊게 앉혀져 곡선을 이룬다. 옷고름은 떼어버린 듯 남아 있지 않으나, 바대는 남아 있어 옷고름이나 매듭단추로 여몄을 것으로 추측한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사선형의 통수(통수)로 전체적인 상의하상의 비율과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해인사 요선철릭 상의하상의 비율은 1: 1.38로 상의가 하상보다 짧다. 전체길이는 102cm로 포(袍)라기 보다는 날렵한 상의[上衣, jacket]의 느낌이다.

지심귀명례 page 79 도판54

수덕사 근역성보관(2005)



국제적 감각이 돋보이는 변수묘 출토 요선철릭

요선철릭은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조선시대 초기까지 입혀진 옷이다. 중국에서 변선오, 변선오자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대와 성종대의 기록에 나타나있다. 철릭은 상의와 하상이 연결되어 있는 옷이며, 치마에 주름이 잡힌 남성용 포류의 일종이다. 철릭과 요선철릭의 차이점은 철릭의 형태와 동일하지만, 허리부분에 선이 부착된 옷이다. 조선시대의 요선철릭은 변수(변수)묘에서 출토된 3점외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변수 묘의 요선철릭 3점은 다양한 형태의 변용이 돋보인다. 철릭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입혀졌고,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중국, 인도 나아가 페르시아(이란)까지 착용되었던 역사가 오래된 국제복이었다.

먼저 깃의 형태는 3점 모두 동일하다. 동시대의 답호나 직령과 동일하게 이중목판깃형태이다. 이중목판깃은 깃의 안쪽에 꼬집어 박기를 하여 마치 좁은 깃 2개를 연결한 형태이다. 각각의 깃 너비를 조정함으로써 정중앙이 아닌 여유

가 느껴진다.

소매의 형태는 1점은 긴팔의 소매이며, 1점은 왼쪽 소매만 반수이고, 다른 1점 철릭의 소매는 양소매를 모두 탈착한 상태이다. 즉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형(transformer)이 가능한 옷이다. 소매의 탈착은 매듭단추가 아닌, 바느질을 하여 고정하는 식이다. 긴팔의 소매는 그다지 넓지 않은 소매로 배래는 살짝 굴려서 좁은 소매의 직선이 주는 딱딱한 선에서는 벗어나는 또 다른 여유가 있다.

또한 이 시대 철릭 가운데 하나가 고름바대이다. 고름바대는 금선이나 문단 혹은 문사와 같은 고급직물을 사용하여 고름을 튼튼하게 부착하는 것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2가지 역할을 한다.

변수 묘 출토 요선철릭의 요선장식은 첫째, 옷감 색과 다른색의 끈을 짜서 부착한 것 둘째, 명주를 쌍밀이 단추 형식으로 양쪽에서 말아서 끈의 형태로 만든 것을 붙인 것 2종류가 있다. 요선의 옆선 처리는 앞뒤 장식한 끈을 사슬 뜨기 형식으로 펴서 붙인 것과 허리 둘레 전체를 계속 이어서 붙인 2가지 양식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역사문화도감 page 130-133



여유와 활동성이 보장된 남자 포- 철릭 신경유 묘 출토철릭

철릭은 고려시대의 원(元) 간섭기에 원나라에서 도입된 남자의 포이다. 심의와 비슷한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옷이며, 심의보다는 옷길이가 짧고, 주름이 풍성

하게 잡혀 활동성이 있는 옷이다. 이 옷은 주로 활을 쓰거나, 말을 탈 때 동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옷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하상에 트임이 있어 활동성을 더 주기도 하였다. 소매 또한 탈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철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계속 입혀져 왔지만, 용도는 변화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의 평상복으로 주로 착용되었으며, 관리들의 관복인 단령의 반침옷으로도 착용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면 철릭은 용복이나 군복으로 사용되어, 일반인들의 평상복 착용보다는 관리들의 옷으로 더욱 많이 착용된 것 같다. 시대에 따라 철릭은 깃, 소매, 치마의 주름형태에 따라 변화가 많으며, 상의와 하상의 비율, 겨드랑이 아래의 길이 등도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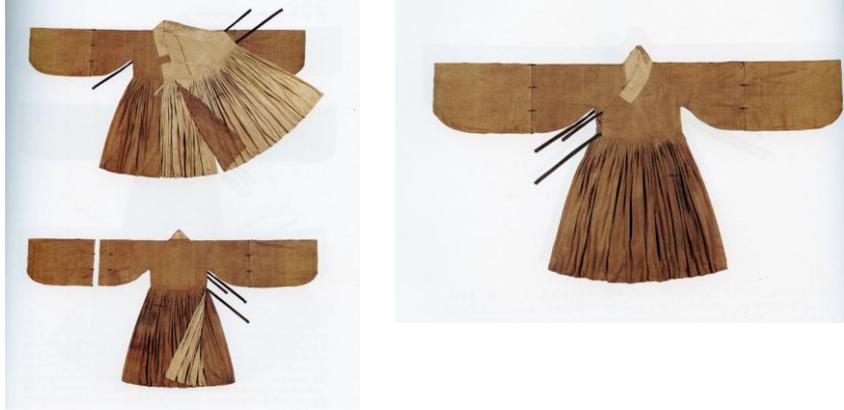
이 철릭은 임진왜란 때 무관으로 활약한 신립 장군의 2남인 신경유(1581~1633)의 묘에서 수습된 8점의 철릭 가운데 1점이다. 신경유 묘에서는 겹철릭 2점, 홑철릭 6점이 수습되었다. 길이는 130~140.5cm, 화장 127~134cm, 품 52~64cm, 의상의 비례는 1:2 정도이다. 소매는 6점이 양쪽으로 탈착할 수 있다.

신경유 묘에서 수습된 철릭 가운데 1점으로 토주로 만든 겹철릭이다. 소매는 양쪽의 탈착식으로 탈착은 양쪽으로 말아서 만든 자색 주(紬) 쌍밀이 매듭단추 7쌍을 이용하였다. 소매는 10.5cm가 겹쳐지며 양쪽 소매를 모두 떼어내면 화장은 64cm이다. 깃은 칼깃이며 깃너비와 거의 유사한 넓은 너비의 동정이 달려있다. 고름은 2쌍의 길고 좁은 자색 옷감으로 만든 것이 사용되었겠지만, 지금은 1개가 없어진 상태이다. 치매상의 주름은 1.2~1.5cm 너비의 주름이 치마 도련까지 잡혀있다. 치마의 양 옆에는 트임이 있다.

이 철릭의 디자인은 변용이 가능한 실용성이 돋보인다. 양쪽 소매를 탈착하여, 답호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 넓은 너비의 동정이 부착되어 단령 아래의 밑받침 옷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치마에도 주름이 잡혀있지만, 양 옆에도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을 더욱 더했다. 옷고름과 소매 탈착에 사용된 자색 옷감은 색상 자체가 옷의 구성에 포인트로 작용하여 단색에 자색으로 강조하여 무로함을 보충하였다.

또한 철릭 치마 주름을 잡을 때에 겹섶과 안섶이 겹칠 때 부함을 방지하기 위해, 안섶에는 주름을 잡지 않고 그대로 두어 단정하게 보인다. 겹이나 솜철릭 일 때는 도련과 수구과 길 가장자리에 상침을 하여 겹감과 안감을 고정한다. 이 때 상침하는 실의 색은 대부분 옷감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단순한 것에 보충하여 리듬감이 있다.

사진: 신경유 묘 철릭 겹철릭(3)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406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90-91
 다양한 형태의 변용(變容)과 활동성의 보장-철릭(심수륜 묘 철릭)



철릭은 고려시대 원에서부터 전래되어 온, 남자 포류의 일종이다. 깃은 곧은 깃이고 상의와 하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치마에는 주름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깃의 형태, 소매 배래의 형태, 주름 너비의 변화, 상의와 하상의 비율, 옷고름의 형태와 크기 등에 따라 시대를 가름할 수 있다.

심수륜(~)묘에서 수습된 철릭 9점 가운데 소개하려는 이 겹철릭(No.26)은 여러 가지 장식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철릭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소매의 탈착은 철릭 자체의 형태를 변화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요소이다. 철릭의 소매는 고정되어 있는 긴소매, 왼쪽 소매만 탈착하는 경우, 양쪽 소매를 모두 탈착하여 반소매의 철릭처럼 착용할 수도 있다. 심수륜 철릭의 소매는 양쪽 탈착식이나 현재 왼쪽 소매는 수습되지 않아 없는 상태이다. 탈착 소매는 길에 사용한 옷감과 다른 색상의 옷감을 사용하여 쌍밀이 단추로 탈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소매 배래의 형태는 봉어 배래에 가까운 곡선이다.

옷의 여밈 부분도 시대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심수륜 No.26 철릭은 옷고름 1쌍과 쌍밀이 매듭단추 1쌍으로 여몄는데, 위쪽에 매듭단추를 아래쪽에는 옷고름이 있다. 매듭단추와 고름 위에는 화문(花紋)금선단으로 고름바대를 만들어 부착하고 상침으로 마감하였다.

철릭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치마라고 할 수 있다. 심수륜 No.26의 치마는 36cm 너비 옷감으로 계산하면 12폭을 조금 넘는 풍성한 느낌이다. 일반적으

로 철릭의 주름 형태는 고운주름(gather), 맞주름(box pleats), 칼주름(knife pleats)으로 나눌 수 있다. 철릭의 주름은 겉감과 안감 각각 잡아 주름이 투박하지 않다. 심수륜 철릭(No. 26)의 주름은 너비 0.2cm로 곱게 잡았고 이 주름을 고정하기 위하여 허리에서 2cm 정도 내려 온 곳에서 흠질을 하였다. 철릭의 안감의 주름은 1cm 너비로 겉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잡았다. 이는 겹철릭의 주름을 곱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철릭의 용도는 평상복으로 사용되지만, 용복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용도를 충족하기 위한 또 다른 기능적인 디자인 요소로 겨드랑이 삼각무 [gusset]를 들 수 있다. 겨드랑이 삼각무는 철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겨드랑이 삼각무가 첨가됨으로써 굉장한 활동성이 부가된다.

심수륜모 출토복식(2004), 경기도박물관 page 136 그림 78-86



의원군 이혁(1662~1722) 철릭

의원군 이혁(이혁 ~1722)은 왕실종친으로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지냈다. 이 철릭은 의원군 이혁의 묘에서 보공용으로 수습되었으며, 철릭의 주름은 징겨져 있었으며, 철릭 치마에 있는 실꼬리 등으로 보아 착용하지 않은 새옷으로 생각된다. 이 철릭은 홑철릭이며 초록색의 기운이 살짝 남아있다.

18세기 초엽의 전형적인 철릭의 형태로, 깃은 칼깃이며 깃너비의 1/2 너비 가량되는 동정이 달려있다. 철릭의 여밈은 옷고름 1쌍과 쌍밀이 매듭단추 1쌍으

로 여몄다. 철릭의 깃은 그다지 모나지 않는 칼깃에서 동그레깃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43cm 74cm로 1:1.72 이며 소매통의 길이는 총길이의 1/2의 두리소매이다. 철릭의 상의에는 넓은 대고리가 있다. 왼쪽길에 솟단추가 달려있고, 오른쪽 길에 압단추가 있다. 치마의 주름은 허리부터 하단까지 칼주름[knife pleats]이 잡혀있다. 입지 않은 새옷으로 치마 도련에서 5cm 가량 올라온 곳에 주름을 고정하기 위한 시침이 되어 있었다.

이 철릭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 감각은 상의와 하상의 비율과 구성이다. 조선전기 철릭의 주름이 고운 주름 또는 맞주름 형태의 주름으로 허리부분에 주름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임진란 이후 1630년대에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1:2 이며, 주름의 형태가 칼주름(knife pleats)이었다. 주름너비도 1630년대는 3cm 이지만, 의원군 이혁의 철릭 주름 너비는 2.5cm로 상의와 하상의 비율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보인다. 상의는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의는 주름치마로 착용을 하였을 경우 치마주름이 움직이는 입체적이면서 3차원적인 구성으로 변화한다.

또한 치마는 칼주름[knife pleats]이면서 좌우의 치마 양옆이 트여있어 3~6.5cm 겹쳐있어 트임이 벌어지지 않게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능적인 디자인은 솔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철릭은 홑옷으로 식서의 솔기는 어긋하게 가윗밥을 넣어 옷감이 비틀리거나 우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홑옷에 반드시 들어가는 옷의 바대는 어깨, 겨드랑이, 상의와 하상의 연결부에 있으며, 상의와 하상의 섹과 치마의 선, 도련에는 단이 있다.



옷고름은 너비 6.5cm 길이 63cm 이며, 섹길이가 짧기 때문에 옷고름은 1쌍만 달려있고 나머지는 매듭단추로 고정하였다. 대(帶)를 고정하기 위한 대(帶)고리와 대를 묶을 수 있는 고름이 좌우에 1쌍이 있다.

경기도박물관 복식명품선 page 34 도판 15

흥완군 일가 철릭

흥완군 이정웅(1815~1849)는 남연군의 둘째아들로서 흥선대원군과 형제이다. 조선시대 말기의 철릭으로 융복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철릭은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남자 포류의 일종이다. 철릭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 흥완군 일가의 철릭은 운보문사로 만든 홑철릭으로 소매의 한쪽은 탈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통 소매를 한쪽만 탈착할 때는 왼쪽 소매를 탈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나 이 철릭은 오른쪽 소매를 탈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소매의 탈착은 매듭단추를 사용하였고 소매부리의 아래쪽은 막혀있고, 그 끝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철릭의 깃은 칼깃이며, 소매는 옷길이의 거의 1/2에 달할 정도의 넓은 두리소매이나 수구 쪽은 굴리지 않았다. 철릭 시대 구분의 중요한 단서인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1:3.1로 상의가 짧아 후기로 갈수록 착용자가 키가 커보이는 착시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와 더불어 넓고 긴 옷고름 1쌍을 이용하여 옷을 여며 조화를 이루었다. 하상[치마]의 주름 형태는 칼주름이나 도련까지 주름을 잡지 않고 허리 부분에만 주름을 잡아서 옷감의 무게에 의한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가 형성되었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 자
수편 page 192 흥완군
의복
문화재청(2006) 숙명여
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뒷트임이 있는 겹옷-창의(警衣) 신경유

창의는 조선시대 임진란 이후에 입게된 남자용 포이다. 사대부의 평상복용 겹옷이나 외출복으로 입었으며, 관리들의 조복이나 제복 단령의 밑받침용으로 사용되었다. 창의의 특징은 뒷중심 허리 아래에 트임이 있는 것이다. 창의의 깃은 곧은 깃이며 길의 가장자리에는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다. 소매의 형태와 뒷트임 길이의 변화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이것으로 시대의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경유(1581-1633)묘 출토창의는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겹옷 3점, 홑옷 1점, 솜옷 1점이며 옷감은 무문능 3점, 소운문단 1점, 운문사 1점이며 색상도 다양하다. 길이 124~135cm, 화장 125~132cm, 품 50~57cm이다. 소매는 1630년대의 특징인 진동에서 살짝 파여서 배래가 거의 직선이며 수구에서만 굴러진 두리소매의 일종이다. 신경유묘 출토 창의 가운데 1점은 왼쪽 소매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 동시대인 이화여대 소장품인 최원립 묘 출토 창의도 이러한 것이 있어 무관복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경유 묘 출토창의의 디자인은 여느 창의와 다른 점은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대 남자 복식의 단순함에서 일탈과 같은 화려한 옷감의 사용이다. 이는 창의 자체가 매우 단순하여 최소한의 트임만 있어야하는 것에서 이를 보충해야하는 것을 옷감으로 처리한 것 같다. 무문능과 같은 무늬가 없는 소박한 옷감에는 색상이 다른 좁고 긴 옷고름을 사용하여 단순함을 깨우는 위트감을 주었다. 수구와 뒷트임에도 찢김의 방지를 위해 사뜨기나 고운 박음질로 처리하였다.

사진: 신경유 묘 창의 (1-4)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400-9404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78-85



활동성이 더해지다.- 협수(夾袖)

최원립(1618 ~ 1690) 장군묘 출토 복식

협수는 곧은 깃에 소매는 좁으나 길 양쪽에 무가 달려있고, 뒷트임이 있는 옷이다. 복식의 큰 범주로 나누면 창의류(襜衣類)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소매가 좁은 점이 창의(襜衣)와는 구별된다.

최원립 장군 묘에서 수습된 협수는 겉감은 운보문단, 안감은 연화만초문단, 동정은 운문단으로 만들었다. 이 옷의 특징인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사선형이다. 앞길의 양쪽에는 무가 있으며, 그 무에는 31.5cm의 트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뒷길 중심에도 51cm의 트임이 있다. 트임에는 사뜨기로 보강되어 있으며, 뒷 중심 트임에는 매듭단추가 달려 있었던 흔적은 남아 있다. 옷의 여밈은 고름 1쌍으로 여몄으며, 속고름은 온전하나 겉 고름은 너비 2.5cm의 좁은 옷고름의 일부만 남아 있다. 깃은 칼깃에서 좀더 너그러운 둥그레 깃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형태이며, 깃의 2/3너비의 운문단 동정이 달려있다.

이 협수는 병자호란 이후, 무관의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시기 일반적인 포류의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인 것에 비해, 유난히 좁은 수구와 사선형의 배래, 무와 뒷중심의 트임 등이 실용적인 무관 복식으로서의 협수의 가치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age 22 도판 8 협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중치막(中致莫)

중치막은 조선시대 남자 포류의 일종으로, 깃은 곧은 깃에 진동아래에서 옆트임이 길게 있고, 소매가 넓은 포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남자들이 가장 즐겨 입었던 포 가운데 하나이다. 평상용 겉옷으로, 외출복으로, 그리고 도포나 심의, 창의의 받침옷으로 많이 입었던 옷이다. 중치막의 시대구분은 소매 형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소매통의 길이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경유(1581-1633) 묘 출토 중치막은 총 29점이 수습되었을 만큼 이 시대에는 중치막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치막은 겹 11점, 겹누비 12점, 솜옷 6점이고, 왼쪽 소매만 탈착식의 소매가 있는 중치막이 17점이 있다.

신경유 묘 출토 중치막은, 중치막으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지만 다량 수습되었고 형태 또한 후기의 것과 비교할 때 변화가 심하지 않다. 중치막이 이렇게 오랜 기간 착용되었던 것은 중치막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과 편리함(간편함)과 더불어 사대부로서의 품위를 표현할 수 있는 넉넉한 소매 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경유 묘 출토 중치막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치막의 아름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치막 형태의 단순성이다. 꼭 필요한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제한 조선시대 복식 가운데 대표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고리에서 길이를 연장하여 포와 같은 길이지만, 길 가장자리에 있는 큰 면적의 무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하지만 직선으로 떨어지는 도련의 선은 용납하지 않고 최소한의 여유를 두어 완만한 곡선의 도련으로 마감하였다.

둘째, 단순하다고 하여 아름다움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도련의 곡선을 만들기 위한 작은 삼각형 무의 첨가로 인하여 길이 이루는 옆선 또한 도련 쪽으로 갈수록 사선에서 과도하지 않은 곡선을 연출한다.

셋째, 중첩에서 오는 미를 보여주면서도 활동의 자유로움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치막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치막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양옆이 트인 옷이다. 혜원의 풍속화에서 보면 중치막을 입은 사대부들은 그 아래에 입은 옷들

을 옆선을 통해 살짝 살짝 보여주고 있다. 저고리, 배자 등등 겹으로 완전히 감추는 옷이 아니라, 옷을 마련하기 위해 염색과 길쌈, 바느질로 애쓴 규방 여인들의 숨씨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의 자유로움 또한 겨드랑이 아래 부분이 트여 있어, 어느 포류보다 활동성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활동성의 보장은 계산된 안정성 위에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겠다.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서 트임이 시작되면 진동에서 힘을 많이 받아 옷이 쉽게 뜯어지거나, 찢겨 질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치막의 트임은 보통 겨드랑이에서 약 15~20cm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 트임 위에 ㄱ형의 사뜨기 혹은 쌍밑이 단추로 보강을 하였다. 이 사뜨기와 쌍밑이 단추는 같은 색상의 옷감이나 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더 과감한 자색을 사용하기도 하여 숨은 그림찾기와 같은 소소한 반전의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다섯째, 단순함과 편리함, 그리고 활동성은 같은 맥락을 지니는 단어이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하여 사대부의 품위를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대부의 품위는 중치막에 있어서는 여느 포와 다를 바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치막은 철릭이나, 도포처럼 소매를 넓고 크게하여 사대부의 겹옷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 신경유 묘 중치막 (24)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433

신경유 묘 방령 (3)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420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140-141,

121



신경유(1581~1633) 묘 출토 운문사 홀도포와 포도문사 홀도포

도포는 왕이하 사대부의 외출복이자 의례복이었으며 유생들의 관복으로도 사용되었다. 1884년 고종 21년 갑신의제개혁 때 좁은 소매 옷을 입도록 할 때, 도포는 제외되어 현재까지 넓은 소매의 대표적인 예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도포는 끈은 깃에 두리소매에 비교적 풍성한 옷이다. 도포의 특징은 뒷자락과 뒷자락 속에 감추어진 뒷길의 무에 있다. 즉, 옆선에 달린 뒷자락의 무(이엽삼)가 안쪽으로 들어가 뒷자락의 안쪽으로 고정되는 남자 포류의 일종이다. 뒷자락의 무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홀도포는 한판이라고 불리는 어깨바대의 연장에 고정을 하고, 겹도포나 솜도포는 뒷자락에 직접 바느질하여 고정하기도 한다. 1630년대를 기점으로 도포는 철릭, 중치막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 일상복이다. 도포는 구성에 따라 홀도포, 겹도포, 솜을 얇게 둔 솜도포가 있다.

1633년이 몰년인 무관 신경유의 무덤에서는 도포가 12점이 수습되었다. 겹옷 3점, 홑옷 9점이다. 신경유 묘의 홀도포는 운문단, 운문사, 주, 화문단, 포도문사, 무문사, 무문능 등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려는 도포는 사 종류로 만들어진 홀도포로 구름무늬가 있는 운문사 그리고 작은 포도송이 무늬가 있는 홀도포이다. 두 도포 모두 거의 투명하리만큼 옷감이 얇다. 소매는 1630년대의 전형적인 소매로 겨드랑이 부분에서 사선으로 조금 파였고 수구 쪽에는 조금 굴린 두리소매로 소매통은 도포 길이의 1/3정도이다. 어깨부터 한판이 달려있어 좌우의 뒷길무가 고정되어 있다. 도련은 길에서 그렇게 넓게 확장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을 준다. 홑옷이므로 수구, 겹섶, 안섶, 도련의 가장자리에는 단이 있어 겹에서 볼 때는 깃은 2점 모두 칼깃이다. 겹고름과 속고름 모두 길고 좁은 고름이 달려있다.



도포(신경유 묘 출토 -운문사)

사진: 신경유 묘 도포3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90

신경유 묘 도포6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93

신경유 묘 도포9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96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56~57,
62~64, 68~69



도포(신경유 묘 출토 -화문사)



도포(신경유 묘 출토 -무문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포용의 미, -도포

영조도포

현재까지 남자한복의 대표적인 예복으로 인식되는 도포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비슷한 옷이 보이기 시작했다. 1600년대 초기에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도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630년대에는 홑, 겹, 솜도포까지 매우 다양한 구성의 도포가 철릭과 함께 조선시대 남자들의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후 도포는 유학자들의 옷이나 제례나 관례 때 입는 예복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시대 고종 때 여러 차례의 복제개혁에 의해 소매 넓은 남자 포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도포로, 일제시대 이후에 예복으로 오늘 날까지 일반인에게 대표적인 예복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포의 형태는 앞에서 보면, 곧은 깃의 평범한 포이다. 그러나 도포의 진면목은 뒷모습에 있다. 도포는 앞자락에 붙은 무가 여유있게 뒤쪽까지 감싸는 형태이다. 뒤쪽으로 돌아 간 양쪽무를 이엽삼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이 붙은 모양이다. 뒤쪽무인 이엽삼은 서로 만나 겹치기도 하고, 여유있게 트임이 있기도 한다. 그 위를 뒷자락이 덮이는 구조이다. 뒷자락은 선비의 기품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말을 타거나 앉을 때 옷자락의 구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아도 엉덩이 부분의 트임의 막아 뒷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 후기 홑도포일 때는 어깨바대가 연장되어 등 부분까지 연장되어 내려온 한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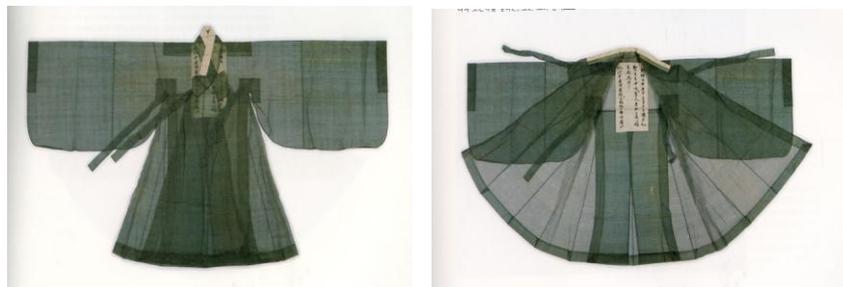
조선시대 영조가 승하했을 때 장례절차를 기록 중 소렴과 대렴 그리고 재궁의대(재궁의대)의 기록에서도 초록, 다홍, 남색의 도포가 사용되었고, 도포의 직물은 대단, 유문사, 광직, 공단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홑도포의 아름다움과 직물과 색상을 볼 수 있는 유물로 대구 파계사 소장인 영조(英祖) 도포가 있다. 이 도포는 1979년 파계사 원통전(圓通殿)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복장품으로 발견된 것으로 영조16년(1740) 영조가 이곳을 왕실을 위해 기도하는 도량으로 삼고 영조의 청사상의(靑紗上衣)를 복장하여 만세유전을 빈다는 발원문과 함께 수습되었다. 도포는 옅은 옥색의 사직물로 만든 홑도포로 옷감이 매우 얇아 반투명하게 비쳐, 솔기와 바대 그리고 가장자리의 시접과 단이 겹쳐서 새로운 시각적인 공간의 개념을 창출한다. 더 나아가 이 옷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착용하면 도포 아래에 입은 옷에 따라 두께와 색상이 다르게 연출된다. 도포의 깃은 대부분 칼깃인데, 이 도포는 목판 당코깃이다. 남자 옷에 있어서 당코깃은 궁중의 옷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이 도포는 어깨바대는 있지만 한판은 없어 뒷자락에 직접 고정된 조선시대 중후기 홑도포의 특징을 보여준다. 소매는 옷

길이의 1/2을 넘는 넉넉한 두리소매에, 품과 자락 의 도련너비는 넓어 풍성하고 여유로움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109

문화재청(2006)



유교의 심오한 뜻을 품고 있는 심의(深衣)-김확 묘 출토 심의

심의는 의와 상을 따로 재단하여 허리 선을 연결한 옷으로, 유학자의 법복으로 사대부의 연거복으로 착용되었다.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주자학의 성행으로 인하여 관례와 제례 뿐만 아니라 상례시 수의의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 심의를 착용하기도 했다.

심의의 기원은 중국의 예기에도 “옛날 심의는 대개 제도가 있어.....” 라고 표현된 정도로 오랜 역사가 있어왔으며, 시대와 가문에 따라 다양한 심의의 형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 예종조의 기록에 심의의 존재가 나타나지만, 이미 삼국시대에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고려시대 말기에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심의의 착용은 익제 이제현의 초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는 이렇듯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학자의 가문이나 학풍에 따라 형태의 해석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초상화에 보면 심의는 대대와 함께 조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복건[幅巾]이나 사방관 또는 동파관을 쓰고 있다.

심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포종류와는 형태가 구별된다. 형태의 해석은 심의의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의는 4폭의 저고리와 12폭의 치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4계절과 12달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12폭의 해석도 학자에 따라 상의와 하상을 포함하기도 하고, 치마의 폭수로 한정하기도 한다. 각 부분은 거, 연, 속임구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옷깃의 형태는 곧은 깃과 방령 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속임구변 또한 부위에 대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저고리[의]와 치마[상]을 허리선에서 연결하였고, 옷의 가장자리와 수구에도 검정선을 두른다. 심의에 사용되는 옷감은 무

늑이 없는 소재의 면이나 모시, 그리고 주 또는 단이 많이 사용된다.

조선시대 중기 문인으로 유명한 김확(1572-1633)의 무덤에서 수습된 심의는 선비의 기개가 담겨있다. 이 심의는 수의(壽衣)의 가장 곱옷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모시로 만들었으며, 깃과 도련, 수구에는 청색의 무문단으로 된 연(緣)이 있다. 깃은 대금형(對襟形)이며, 하상은 12폭을 연결하였다. 상은 뒤에 6폭, 앞의 좌우에 3폭씩이며, 곧은솔과 어순솔을 반복하여 연결하였다. 옷고름은 상의의 하단에 붙어 있다. 이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가례언해(1631)에 설명되어 있는 ‘속임구변’과 일치하는 바느질법이다. 겨드랑 아래 좌우 양옆의 치마솔기가 곱으로 나오게 한 바느질법이다. 심의의 여밈은 옷고름으로 여민 후 그 위에 대대(大帶)와 조대(條帶)로 다시 한번 장식한다. 김확 묘 출토 심의는 대대와 함께 수습되었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옷감으로 만들어져 가장자리에 무문단을 둘렀다.

허전(허전, 1797~1886)의 초상화에는 방령깃의 심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깃의 모양에 따라 몇 종류의 심의가 있지만, 심의에 담겨진 유학의 극치는 올곧은 선비 정신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첨부: 김확의 심의, 가례언해의 심의, 허전 초상화, 이채 초상화, 대원군 심의본 초상화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age 26

참고 도판: 김확묘 출토복식(2007)

경기도박물관

p.153 김확 심의 치마 양옆 솔기

중치막-국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중치막

중치막은 조선시대 남자들의 포류의 일종으로, 곧은 깃에 옆이 트인 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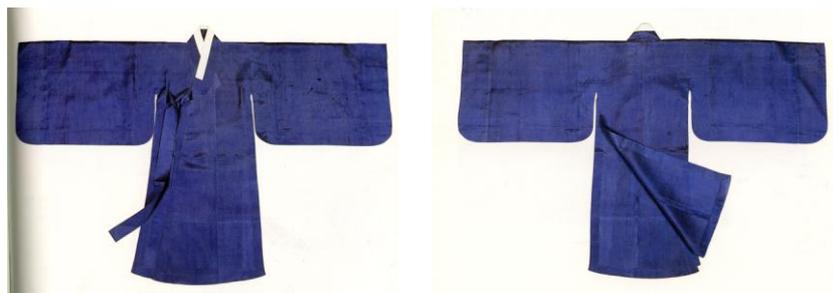
평상복이나 외출복 또는 관복의 반침옷으로 착용되었다. 시대에 따라 소매의 형태와 옷고름의 크기, 깃의 형태 등이 변화한다.

이 중치막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금관조복(金冠朝服)의 반침 옷으로 입었던 옷이다. 다듬질한 청색 명주로 만들었으며, 동정 안쪽에 '中致莫'이라는 묵서(墨書)가 있다.

이 중치막의 깃은 너그러운 동그레 깃이고, 흰색의 동정이 달려있다. 중치막의 특징인 두리소매는 옷길이의 1/2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진동은 소매의 1/2 정도인데, 진동에서 소매 파임이 좁으면서도 아름다워 긴장감을 준다. 품에서 도련까지 별 차이없이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도련에 이르러 양끝만 여유분을 주어 코를 내었다. 홉옷이므로 어깨바대와 겨드랑이 바대가 있다. 너비 5.5cm, 길이 69cm의 긴 고름으로 여몄다.

우리옷과 장신구 page 326-327

열화당(2003)



간편함을 입다.-소창의, 김여은 출토 묘 복식

소창의는 좁은 소매에 길이는 저고리보다 길며, 양옆에는 길이가 긴 트임이 있는 남자의 평상복이다. 이 옷은 저고리 위에 입기도 하고, 저고리 대신 입기도 한다.

문헌에는 17, 18세기의 장유(장유) 혹은 동옷으로 표현되었고 19세기에 접어들면 '소창의' '소창옷'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 옷은 17세기 무관이었던 김여은(김여은, 1596 선조29~1665 현종6)의 무덤에서 수습된 화점문룡(花蝶紋綾) 누비 소창의이다. 길이는 같은 무덤에서 나온 포류(袍類)보다 약 10cm 정도 짧아, 포류 속에 간편하게 입는 평상용 옷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솜을 얇게 두고 누비간격 10~13cm로 넓게 누볐다. 누비 옷이지만 솜옷으로 만들어 누빈 것인지 삶과 도련 등, 일반적인 누비옷에 보이

는 별포단은 없다.

것은 남자 저고리나 포류에서 보이는 칼
것이며,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의 통수(筒袖)이다. 이 소
창의는 길의 양옆에 쇠과 무를 이었으나,
밑단은 그다지 넓지 않아 안정감이 있다.
진동아래에는 옆트임이 44cm 가량 있고,
겨드랑이에는 삼각무가 있어 좁은 소매와
더불어 활동성이 보장되는 디자인이다.
이 시대 소창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옷
고름이라 할 수 있다. 소창의의 옷고름은
겉깃에 달린 긴고름은 허리를 한번 돌려
서 묶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너비 5cm,
길이 102cm이고 짧은 고름은 45cm이다.
꼭 살려 두어야만 하는 이유있는 조선시
대 남자 포의 기본 디자인이라 할 수 있
겠다.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age 94-95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평상복-액주름 (16세기)

액주름[腋注縗]은 액추의(腋皺衣), 액주음(腋注音)으로 문헌에 표기된 조선시대
전기 남자의 평상복 상의류의 일종이다. 깃은 곧은 깃에 품은 넉넉하여 깊숙이
여며지며 길이는 동시대의 남자포류에 비해 10~20cm 짧은 편이다. 액주름은
17세기 전기 이후 즉 병자호란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는 옷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액주름은 과천출토 광주이씨 의복으로 이언웅(李彦雄)과 그의
자부(子婦) 청주한씨(淸州韓氏)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
장이다. 광주이씨 출토 액주름 3점 가운데 1점이다.

액주름은 이름에서 유추되듯이 겨드랑이 아래에 무가 있으며, 그 무에 고운 주
름이 있는 옷이다. 이 액주름은 겉감은 고운 무명이고 안감은 약간 거친 무명
이다. 0.15cm 간격으로 매우 곱게 누벼져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에는 누비를

정교하게 주름잡았다. 깃은 칼깃이고, 동정은 길에 사용한 옷감과 다른 명주로 만들었다. 옷고름은 넓게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소매는 진동과 수구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약간의 사선형의 통수(筒袖)이다.

이 액주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겨드랑이의 주름이다. 겨드랑이의 주름이 있는 곳은 짧은 사다리꼴의 무가 먼저 달리고 그 무의 하단에 고운 주름[액주름]을 잡았다. 또한 진동에는 삼각형의 무가 짧은 사다리꼴의 무와 연결되어 있는 다중구조이다. 길이 107cm, 화장 92cm, 품 68cm



로 가로 세로의 비율이 매우 안정감 있는 구조를 보인다.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편 page 302 광주이씨일가 출토복식무명 누비액주름 문화재청(2006)

변형이 가능한 기능성 덧옷,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다.-방령(方領)

방령은 깃모양이 네모진 형태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임진란 전후부터 후기까지 네모난 깃모양의 옷은 다양한 형태와 옷길이에 있지만

형태는 모난 깃에 맞깃[대금형]에 짧은 소매가 특징이다. 옷길이는 앞뒤길이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 등 다양하다. 특히 임진란을 전후해서 돌아간 분의 묘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마상의나 무관용 옷으로 기능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추측한다.

신경유묘에서는 4점의 방령이 출토되었다. 4점 모두 길이가 길어 포류 위에 입었던 옷으로 추측하며, 소매는 탈착식으로 된 긴 소매형과 소매가 없는 방령이 각각 2점이다. 홑방령 2점, 겹방령 1점, 솜방령 1점이다. 4점 모두 뒷중심에 긴트임이 있다.

방령은 고대를 중심으로 네모난 깃을 꼬집어 박아 이중깃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동정까지 달려있어, 포 위에 입는 겉옷의 구실을 하였다. 앞중심에는 좌우에 쉼이 있고, 좌우의 길에는 무가 달려있는 완전한 좌우동형이며, 쌍밀이단추 4쌍을 이용하여 옷을 여몄는데, 오른쪽은 암단추, 왼쪽은 숫단추를 달았다. 좌

우의 옆선에는 트임은 없으나, 매듭 압단추가 달려있다. 이는 뒷중심 트임 바로 위에 달려있는 솟단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치로서 말을 탈 때 뒷자락을 벌릴 수 있는 옷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신경유의 방령1(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유물번호 9370)은 쌍밑이 단추로 뒷 중심과 옆자락을 고정하지만, 방령2(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유물번호 9385)는 끈으로 고정할 수 있다.

신경유묘 출토 방령에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깃의 모양이다. 이중으로 된 방령깃은 그대로 두거나, 상침으로 깃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한다. 둘째, 앞여밈이다. 옷고름으로 여밀 수도 있지만 길과 다른 색상의 옷감을 이용한 쌍밑이 단추로 마감하였다. 셋째 양옆 가장자리와 뒷트임을 연결한 것이다. 이는 편리함도 있을 수 있지만, 입체적(drapery)된 여밈이 창조되어 공간성이 생겨났다. 넷째, 트임의 마감이다. 트임에는 힘을 받아 옷감이 찢어지기 쉽다. 이 부분을 보강하면서도 장식의 역할도 할 수 있게 쌍밑이단추를 부착하거나 \cap 형의 정교한 박음질로 마감한 것이다. 다섯째, 소매의 탈착이 가능한 점이다. 소매가 있든지, 양쪽 소매 모두 탈착을 하든지, 왼쪽 소매만 탈착을 하여 활동에 따라 최대한 여러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변형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진: 신경유 묘 방령 (2)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85

신경유 묘 방령 (3) 단국대 석주선박물관 유물번호 9386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42-43, 44~49



심수룬 배자

배자는 평상복인 저고리 위에 걸쳐입는 소매가 없는 조끼의 일종이다. 조선시

대 배자의 특징은 어깨는 이어져 있지만,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이 완전히 트여 있거나, 일부가 트여있어 활동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 배자의 깃은 대금의 원삼형이 대부분이다. 앞 뒤 길이 차이도 있는 것이 많다.

심수륜 배자는 직사각형 2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이 뒤보다 더 긴 전장후 단형이다. 겹감은 생초, 안감은 세주를 사용하였고 겹감과 안감사이에 저주지가 심감으로 들어 있다.

앞길의 길이는 78cm, 뒷길의 길이는 57cm로 앞뒤의 길이 차이는 21cm 정도이다.

심수륜(1534~1589) 묘에서 출토된 배자는 형태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인 배자가 깃이 있는 반면 이 배자는 깃이 없어 단순함의 극치를 보인다. 깃이 없는 대신에 뒷길은 고대를 1cm 정도 파임을 주어, 그 위에 1.5cm 너비의 테이프로 감쌌고, 앞길에서 목둘레를 U자형에 가깝게 파여 뒷목둘레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앞뒤의 연결은 목둘레에서 약 5cm 가량 겹친 위에 어깨에서 쌍밀이 매듭단추 각 2쌍을 사용하였다. 매듭단추는 뒷길에 암단추, 앞길에 숫단추가 달려있다. 배자의 특징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길의 좌우 옆선이 트여있다는 것이다. 심수륜 묘 출토 배자는 어깨의 연결에도 쌍밀이 매듭단추를 사용하였고, 길의 좌우에도 쌍밀이 매듭단추 각 1쌍을 사용하였다. 좌우 여밈에 사용된 쌍밀이 매듭단추는 앞길에 암단추, 뒷길에 숫단추가 달려있는데 길이는 각각 6cm 정도로 성인이 입어도 충분한 여유분량의 품이 보장된다.

이 배자 디자인은 단순함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직사각형의 평면 2장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디자인에 어깨에만 연결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인해 연출되는 트임의 부피감은 자연스러운 활동감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앞 뒤 길의 길이차이는 착용하였을 때, 뒷길이 길어서 오는 구김 방지의 역할을 독특하다. 또한



심감으로 사용된 저주지는 겹감과 안감의 완충재 구실과 함께 직사각형 2장으로 연결된 배자 디자인에 좀 더 차가운 직선 느낌을 잘 살리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사진: 경기도박물관 복식 명품선 page 65 도판 39
경기도박물관 (2008)

방령 - 신여관

방령은 깃모양이 네모진 형태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임진란 전후부터 후기까지 네모난 깃모양의 옷은 다양한 형태와 옷길이에 있지만 형태는 모난 깃에 맞깃(대금형)에 짧은 소매가 특징이다. 옷길이는 앞뒤길이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 등 다양하다.

이 방령은 신여관(申汝灌, 1530년대~1580년대) 묘에서 출토되었다. 겹감은 소화문단(소화문단) 안감은 주(주)로 만든 겹방령으로 앞길이는 90.5cm, 뒷길이는 67.5cm로 전장후단형으로 말을 탈 때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마상의(馬上衣)로 추측된다. 이 방령은 임진왜란 이전의 옷으로 크고 풍성한 조선전기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품은 86cm로 매우 넓어, 포 위에 겹쳐 입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깃은 마주보는 대금형이며, 명명된 바와 같이 깃은 네모난 파임이 있으며 깃너비의 1/2에 해당하는 동정이 달려있다. 좌우동형으로 깃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썸이 있고, 썸아래에는 턱(tuck)을 몇 개 잡은 사다리꼴 모양의 짧은 썸이 다시 달려있다.

배래의 형태는 거의 직선인 통수이며, 소매는 짧은 반수의(반수의)이다. 진동에는 삼각형무[gusset]가 있어 넓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성을 추가하였다. 옷의 여밈은 자주색으로 추정되는 짙은색 주(紬)로 만든 쌍밀이 단추 5쌍으로 여몄다.

이 방령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전장후단형이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뒤가 짧기 때문에 매우 기능적인 옷이다. 뒷모습이라든지, 옷의 구김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포위에 입는 짧은 옷이므로 착용하였을 때 겹쳐입은 듯한 layered look을 연출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121 도판 81, 81-1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전장(戰場)의 활동복-전복(戰服): 최원립 묘 출토

최원립(1618-1690) 묘에서는 전복이 3점 수습되었다. 3점 모두 치수나 형태는 동일하였다. 이 전복의 길이는 같은 무덤에서 수습된 포류의 길이와 거의 같아, 포 위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험수처럼 뒷트임과 옆트임이 있어 험수와 일습으로 착용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전복은 군복 구성 가운데 하나로 병자호란 이후, 철릭과 답호가 험수[동다리]와 전복으로 변화하였다. 문헌에 있는 전복이 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원립 묘의 전복은 깃이 없는 대금형(對襟形)으로, 깃의 파임은 깊은 U자 형태의 앞트임이 있는 좌우 동형이다. 여밈은 3쌍의 쌍밀이 단추로 여몄을 것으로 추측하나 암단추 고리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왼쪽 길에 암단추가 달려있다.



험수와 더불어 매우 간단하면서도 활동성을 중시한 디자인이다. 첫째, 어깨 산은 조금 경사를 주어 착용하였을 때 전복이 몸에 밀착된다. 둘째, 진동을 깊이 주면서 사선 처리하여 반쳐 입는 포류를 편안히 입을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길에 작은 무를 달아 도련을 넓혔으며, 와 더불어 길의 옆선과 뒷길 중심에 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배가하였다. 넷째, 트임에는 뜯어짐 방지를 위해 사뜨기를 하였

으며, 뒷중심에는 매듭단추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사뜨기와 매듭단추는 트임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장식의 기능이 추가된 예이다.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age 36 도판 16 전복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홍진종 배자

배자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옷으로, 포(袍)나 상의 위에 덧입는 옷이다. 형태는 대금형으로 좌우의 길이 앞 중심선에서 만나는 합임이다. 시대에 따라 깃의 모양과 옷길이 등 다양한 형태의 배자가 사용되었다.

홍진종(洪鎭宗, 1649 ~ 1702) 묘에서 출토된 명주 누비배자이다. 이 배자의 특징은 전장후단형으로 앞뒤 길이 차이가 있다. 옷길이는 앞은 115cm, 뒤는 73cm로 뒤가 앞보다 42cm 정도 짧다. 어깨선은 직선이나 진동은 매우 가볍게 파인 형태이며 양 옆선에는 앞길과 뒷길을 연결하는 고리 2쌍이 달려있다. 고리는 어깨선에서 31cm 떨어진 곳에 1개가 달려있고 다시 6.5cm 내려 온 곳에 1개가 달려있다. 이 앞 뒤 연결 고리 외는 진동을 별도로 고정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옆선은 완전히 트여있는 옷이다.

배자의 앞 여밈은 3쌍의 단추 흔적만 남아 있다. 깃은 없으며 목둘레는 반월형보다는 좀 더 둥글게 파여 있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298 명주솜누비배자
문화재청(2006)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열린 디자인-배자(褙子), 탐릉군 이변 묘 출토

배자는 남녀 공용으로 저고리나 상의 위에 입는 간편복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배자는 어깨는 앞뒤가 연결되어 있지만 진동아래가 트여있거나 진동을 제

외한 옆선의 트임이 깊은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자가 많았다. 이는 배자 자체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디자인을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착용자의 미적 감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가 있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왕실종친인 탐릉군 이변(1636 ~ 1731)의 묘에서 나온 배자는 등걸이[배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매우 단순한 디자인이다. 뒷길과 연결되어 있는 앞길은 어깨 걸이식의 사다리꼴 2개를 X자로 교차하였고 그 끝에 길고 좁은 끈이 달려있



다. 품의 조절은 뒷길 양쪽에 고리가 있어, 길고 좁은 끈을 고리에 넣어 옷고름으로 묶어 주면 옷의 여밈이 완성된다. 화문주(花紋紬) 바탕에 좁은 누비 배자로 옷의 가장자리에는 별포단으로 마감하였다. 이 배자는 착용자의 신체 치수에 따라 끈과 고리로서 옷의 품이 조정되는 열려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129 도판 84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단순함과 장식성-의원군 이혁 묘 출토 방령형 전복(배자)

의원군 이혁(1662-1722)은 인평대군의 손자로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5대조이다. 의원군 이혁의 무덤에서 수습된 복식 가운데 특이한 형태의 방령형 전복이 1점 있다. 큰 사다리꼴 형의 뒷길과 앞길은 사다리꼴을 반으로 나눈 듯 한 형의 좌우길이 달려있는 3자락의 옷이다.

이 전복형 방령 배자는 매우 큰 무늬의 운문단 길에 길의 좌우 가장자리에는 보통 크기의 운문단 연이 있다. 가장자리 연 전체에는 0.5cm 너비의 테이프 로 마감하였다.

이 전복형 배자에서 돋보이는 디자인은 세가지이다. 첫째, 한눈에 보아도 눈에 띄이는 옷감을 사용함으로써 대담한 모티브와 색상의 대조에서 오는 대비감이

다. 길과 그 가장자리의 연(연)은 운문단이다. 길에 사용된 운문단은 평범한 운문단이 아니라, 대형의 운문이 사용되었고, 가장자리 연에 사용된 운문은 길에 사용된 운문크기의 1/4 정도로 축소한 듯한 다른 형태의 운문이다. 이와 더불어 길과 가장자리에 사용된 옷감의 색상 또한 전혀 다르다. 현재는 길과 연의 색상이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보존처리하기 전의 사진을 보면 길의 색상은 짙은 홍색이나 자주 계통처럼 보이며, 가장자리의 색상은 길보다는 훨씬 더 밝은 색상이다. 이는 길과 연의 경계를 매우 뚜렷하게 공간적인 분리감을 주며 옷의 크기가 거대한 것에 비해 날씬해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둘째, 방령형 깃과 가장자리 연의 처리이다. 이 전복형의 배자는 깃이 네모난 방령(방령)형이다. 방령형 깃 너비의 1/2되는 곳에 꼬집어 박기를 한 번하여 이중깃 형태를 이룬다. 깃의 모서리는 대각선으로 접었다. 깃 뿐만 아니라 길과 도련 등의 가장자리에도 연(연)이 둘러져있다. 가장자리에 있는 연은 길과 옷감이 다르며 가장자리 연 너비의 1/3 되는 곳에 꼬집어 박기 선이 한 번 더 주어, 정확하게 1/2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앞뒤 가장자리 도련에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접었다. 이중깃과 이중 연은 모두 박음질로 상침 처리하였다.

셋째, 이 전복형 배자는 복식명칭이 뚜렷하지 않지만 ‘전복형 배자’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보통 배자는 어깨에서만 연결되어 있다. 이 전복형 배자도 어깨에서 연결되어 있고, 어깨에서 37.5cm 정도를 비워놓고 매우 굵은 견사로 길에서 휘감치기를 약 12cm하여 진동을 만들었다. 12cm 이하는 트임을 그대로 두어 활동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진동과 트임의 치수로 보아 포 위에 입는 가장 윗 옷이 아닐까 생각한다.



넷째, 옷의 여밈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연과는 다른 자주색으로 추측되는 쌍밀이 단추의 사용이다. 솥단추는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 길의 왼쪽에는 암단추 고리가 있다.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명품선
page 63 도판 37

의원군 누비 전복

의원군 이혁(1662-1722)은 인평대군의 손자로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5대조이다. 의원군 이혁의 무덤에서 수습된 복식 가운데 배자 종류는 누비배자와 앞에서 언급한 방령형 전복이 각 1점 씩 있다.

의원군 이혁의 누비 전복은 품이 43cm로 동일 분묘에서 나온 포류의 품이 50cm가 넘는 것으로 보아, 소년의 옷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옷의 길이는 94.5cm로 매우 슬림한 형태를 보인다. 이 누비 전복은 화문룡에 누비 간격 0.8cm로 곱게 누볐다. 일반적인 누비옷에는 가장자리의 안쪽에 연(연)을 두르는데 이 누비 전복에는 자주색의 연이 둘러져있다. 좌우 길과 쇄, 옷깃이 같은 모양의 좌우대칭형이다. 좌우에 쇄이 있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여며지는 형태이다. 진동에서 16cm 아래부터 트임이 있다. 깃은 원삼형의 함입[대금형]이며, 깃의 가장자리에는 한땀 상침으로 장식을 하였고, 너비 2cm 동정이 달려있다. 여밈은 자주색 쌍밀이 단추 3쌍으로 여몄으며, 좌측 길에는 솟단추, 우측 길에는 암단추가 달려있다.

이 누비 전복은 누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옷이라 생각된다. 한땀 한땀 겉과 안이 같은 땀을 누볐고, 겉감과 안감으로만 누볐다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얇게 누볐다. 트임과 진동 쇄 부분의 트임이 있는 부분에는 자주색 연을 둘러 누비를 마감했다.

누비의 마감과 여밈의 쌍밀이 단추의 색상은 동일한 색의 옷감을 사용하였지만, 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색상의 옷감을 사용하여 옷감과 색상의 대비 효과와 더불어 디자인의 기본인 발란스(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진동선 파임의 곡선이 매우 아름답다.



18세기 전반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age 64, 도판 38

이연응 묘 출토 마고자

이연응(李沆應 1818 순조 18~1879 고종 16) 왕실종친으로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했다. 마고자는 그 당시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다. 마고자는 구한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청나라에 볼모로 갔을 때 청나라의 '마괘(馬褂)'라는 옷을 입고 귀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머물렀던 기간은 임오군란 이후 1882~1885년이므로 이연응의 몰년 이후이다. 청나라의 마괘는 깃이 없고, 길이가 긴 장포 형태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며 중국에서는 포류 위에 입었던 옷이다.

이 옷은 대금형(對襟形) 원삼깃에 앞이 뒤보다 6cm 짧은 옷이며, 쇠이 달려있고, 길에 좁은 무가 있으며 수구, 쇠, 도련 등 옷의 가장자리는 짙은 색 바이어스테이프를 돌렸다. 겹감은 화문초로 원용문(圓龍紋)이 시문되어 있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1.5cm 줄어드는 통수이다. 진동아래 23.6cm 이하에 앞길에는 13cm, 뒷길에는 18cm의 트임이 있다. 옷의 가장자리는 단에서 3cm 높이의 상침이 있어서 겹감과 안감을 고정하였다.

이 옷은 엄밀히 말하자면 청나라의 마괘와는 다른 조선시대 17세기 후반부터 전해오는 반수의(半袖衣)에서 보이는 디자인의 계통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반수의에서 품이 넓어지면서 옷길이는 짧아지고 소매만 길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age 61 도판 35

고종(高宗)의 누비 저고리

조선시대~대한제국시대 고종(高宗)의 누비저고리로 평상복으로 착용하였던 것이다.

저고리의 형태는 일반인이 착용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자적색 운문숙사 겹감과

흰색 명주 안감을 겹쳐 놓은 후 0.3~0.5cm 간격으로 곱게 누빈 잔누비[세누경]저고리이다. 좁게 누빈 누빔선에 풀을 칠하여 인두로 다려 마치 코드루이 직물처럼 입체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누비형태를 오목누비라고 하였다.

저고리의 겹짓은 둥근 반달형 깃 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으로 되어 있고 소매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일반적인 형태이다. 옷고름은 누비지 않았고, 동정은 달려있지 않으나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저고리의 형태는 왕실과 일반인의 평상복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고종은 갑신 의제 개혁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분 타파에 앞섰고, 복식에 대한 평등 사상을 표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갑신 의제 개혁으로 왕 이하 백정까지 갓과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사치스러운 옷을 없애고 대동(大同)의식을 밝혔다.

누비는 직물의 문양이나 조직이 주지 못하는 입체감으로 소재의 변형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 또한 누비는 옷감과 옷감 사이의 충전물인 솜의 유무와 솜의 두께와 누비 기법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누빔선의 반복되는 너비에 따라 마치 옷감에 그림을 그리 듯 직선으로서 평면감을 창조해 낼 수 있다. 누비 저고리는 안감의 가장자리에 최소한의 너비의 마감선을 사용하여 오목누비에 알맞은 가장자리처리를 하였다.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8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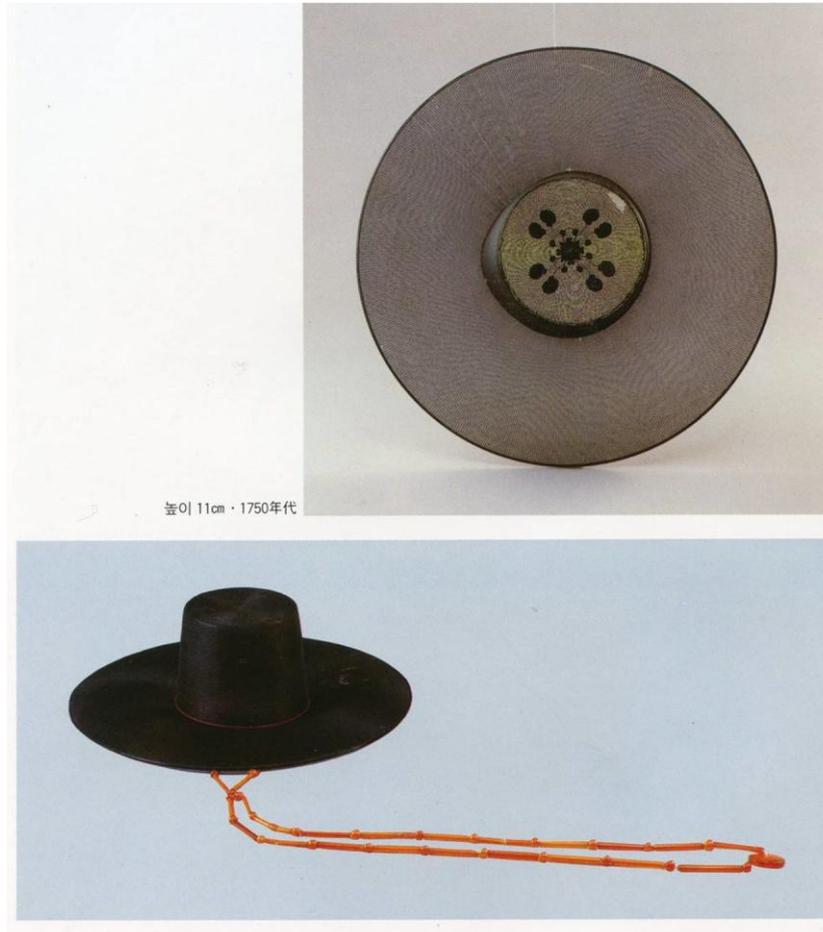
문화재청(2006)



제 3부

대표디자인

남자 복식 대표 디자인 선정 이유



조선시대 남자 복식의 완성은 관모에서 마무리된다. 그 가운데에서 ‘갓’은 신분 상징 및 빼어난 조형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남성 갓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모정의 높이, 양태의 너비 등에 따라 유행이 있었으나, 갓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은 조선시대 내내 엄격히 지켜졌다. 하지만 국말 고종(高宗)대에 임금부터 백정까지 갓과 두루마기를 예복으로 착용함으로써 대동(大同)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복식으로 표현되었다. 갓은 우리나라 고유의 남성 관모로써 ‘조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총과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각 장인들의 솜씨를 합쳐야 완성할 수 있는 수공예품의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양한 갓 끈의 사용에 따라 착용자의 신분 및 미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과 미적 감각은 2011년 S/S 뉴욕의 디자이너 Carlina Herrera가 한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소개한 작품에서 갓을 쓴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갓을 한국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도포는 현재까지 착용되고 있는 남자 예복 가운데 대표적인 옷이다. 도포는 명칭자체가 예복이라는 뜻의 고유명사화 되어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말 이후부터 도포와 유사한 형태의 복식이 선보이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중기에는 평상복으로 많이 착용되었다.

도포는 우리나라 남자복식의 DNA인 영속되어 오는 역사성과 미적감각이 합쳐져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뽑았다. 도포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은 소재의 사용에서 오는 단순함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순함은 도포를 착용할 때 허리에 띠는 광다희나 세조대와 같은 장신구가 도포 자체의 단순함을 돋보이는 구실을 한다. 소재와 색상의 단순함은 구조에서 오는 조형미를 조화롭게 어우르고 있다. 도포는 구성은 백미는 뒷자락에 있다. 양 옆에는 삼각형의 넓은 무가 달려있지만, 뒷중심에는 긴 뒷트임이 있고 이 뒷트임 위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락이 있어 트임을 덮어준다. 착용하면 기능적이면서도 중첩의 미와 우아한 아름다움까지 표현할 수 있는 도포는 한국 남성복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철릭

철릭은 저고리[상의]와 주름치마[하상]가 연결되어 있는 실용적인 옷이다. 철릭은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건너온 옷이나, 조선시대 말까지 남자의 평상복으로부터 관리들의 용복(용복), 군복에 이르기까지 다양도로 착용된 옷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입혀진 생명력이 길었던 옷이었던 까닭은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착용자의 요구와 미적 감각이 맞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철릭 가운데 가장 눈이 뜨이는 것은 형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의와 하상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우리나라 전통복식 가운데는 심의를 제외하고 드문 경우이다. 시대에 따라 치마 주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 주름에 따라 전체적인 철릭의 느낌이 달라진다. 주름 못지않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상의가 하상에 비해 길었지만 임진란을 기점으로 상의가 더 길어지는 변화를 보인다. 더불어 주름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철릭을 규정하는 주름 외도 소매의 형태가 매우 가변적이다. 철릭은 소매를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양쪽을 고정할 수도 있고, 한쪽만 땔 수도 있으며 소매의 형태에 따라 여러 옷으로 변신할 수있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변형은 현대 복식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변형은 복식 자체가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릭을 남자 대표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미지출처

| 번호 | 제목 | 사진 출처 | 소장처 |
|----|---|--|--------------------|
| 1 |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조복-신경유 묘출토 |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20-2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2 |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조복-심동신 유물 | 문화재대관 ② 복식-지수편 page 119-123 문화재청(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3 |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제복-정원용 유물 | 문화재대관 ② 복식-지수편 page 139 문화재청(2006) | 국립민속박물관 |
| 4 | 단령-변수묘 출토 |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page 124-125 국립민속박물관 (2005) | 국립민속박물관 |
| 5 | 단령-정응두 |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91-92 도판 53-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6 | 단령-신경유 |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복식 page 28-29 단국대학교출판부(2008)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7 | 단령-이혁 | 경기도박물관 복식명품선 page 18-19 경기도박물관(2008) | 경기도박물관 |
| 8 | 선비의 일상, 얇은 옷감과 정갈한 자색 실로 표현되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묘 출토 면포(綿布) 직령-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페이지 24-25, 도판번호 006, 007 경기도박물관(2008) | 경기도박물관 |
| 9 | 가야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伽倻山 文殊寺 金銅阿彌陀佛腹臑) 답호 | 지심귀명례 page 35 도판 27 수덕사 근역성보관(2005) | 동국대학교 성보박물관 |
| 10 | 은유와 부드러운 곡선의 미, 변수 묘 출토 연화문사 답호 | 한민족 역사문화도감, 국립민속박물관(2005) page 140-141 | 국립민속박물관 |
| 11 | 답호-정원용 | 문화재대관 ② 복식-지수편 page 141 은조사 홀 답호 문화재청(2006) | 국립민속박물관 |
| 12 | 연분홍 고운 모시 철릭 | 지심귀명례 page 79 도판54 수덕사 근역성보관(2005) | 해인사 성보박물관 |
| 13 | 국제적 감각이 돋보이는 변수묘 출토 요선철릭 | 한민족역사문화도감 page 130-133 국립민속박물관(2005) | 국립민속박물관 |
| 14 | 여유와 활동성이 보장된 남자 포-철릭 신경유 묘 출토철릭 |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page 90-91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 15 | 다양한 형태의 변용(變容)과 활동성의 보장-철릭(심수륜 묘 철릭) | 심수륜묘 출토복식, page 136 그림 78-86 경기도박물관(2004) | 경기도박물관 |
| 16 | 의원군 이혁(-1722) 철릭 | 경기도박물관 복식명품선 page 34 도판 15 | 경기도박물관 |

| | | | |
|----|---|--|------------------|
| | | 경기도박물관(2008) | |
| 17 | 흥완군 일가 철릭 | 문화재대관 ② 복식 지수편 page 192 흥완군 의복 문화재청(2006)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 18 | 뒷트임이 있는 겹옷-창의(擎衣) 신경유 | 정사공신 신경유공 慕 출토복식 page 78-85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19 | 활동성이 더해지다.- 협수(夾袖) 최원립(최원립 1618 ~ 1690) 장군묘 출토 복식 |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age 22 도판 8 협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박물관 |
| 20 | 중치막 | 정사공신 신경유공 慕 출토복식 page 140-141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21 | 신경유(~) 묘 출토 운문사 홀도포와 포도문사 홀도포 | 정사공신 신경유공 慕 출토복식 page 56-57, 62-64, 68-69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 22 |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포용의 미, -도포 | 문화재대관 ② 복식 지수편 page 109 문화재청(2006) | 파계사 |
| 23 | 유교의 심오한 뜻을 품고 있는 심의(深衣)-김학 묘 출토 심의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age 26 경기도박물관(2008) | 경기도박물관 |
| 24 | 중치막-국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중치막 | 우리옷과 장신구 page 326-327 열화당(2003)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 25 | 간편함을 입다.-소창의, 김여은(1665) 출토 묘 복식 |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age 94-95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 안동대학교 박물관 |
| 26 |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평상복-액주름 (16세기) | 문화재대관 ② 복식 지수편 page 302 문화재청(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 27 | 변형이 가능한 기능성 덧옷,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다.-방령(方領) | 정사공신 신경유공 慕 출토복식 page 42-43, 44-49 단국대학교 출판부(2008)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
| 28 | 심수룬 배자 | 경기도박물관 복식 명품선 page 65 도판 39 경기도박물관 (2008) | 경기도박물관 |
| 29 | 방령-신여관(16세기) |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121 도판 81, 81-1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30 | 전장(戰場)의 활동복-전복(戰服): 최원립 묘 출토 |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age 36 도판 16 전복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박물관 |
| 31 | 흥진종 배자 | 문화재대관 ② 복식지수편 page 298 명주숨누비배자 문화재청(2006)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 32 | 열린 디자인-배자(褙子), 팀릉군 이번 묘 출토 |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age 129 도판 84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
| 33 | 단순함과 장식성-의원군 이혁 묘 출토 방령형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명품선 page 63 도판 37 | 경기도박물관 |

| | | | |
|----|----------------|--|--------------------|
| | 전복(배자) | 경기도박물관(2008) | |
| 34 | 의원군 누비 전복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age 64, 도판 38 경기도박물관(2008) | 경기도박물관 |
| 35 | 이연응 묘 출토 마고자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age 61 도판 35 경기도박물관(2008) | 경기도박물관 |
| 36 | 고종(高宗)의 누비 저고리 | 문화재대관 ② 복식·자수편 page 81-83 문화재청(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